

북핵 문제, 제재만으로는 풀기 어려워

문정인 / 연세대학교 교수

끝이 보이지 않는 북핵 문제

15년이나 된 북한 핵 문제,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 실험에 대한 응징으로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 1874호를 채택, 그에 따른 대북 제재를 실행해 오고 있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시 안보리 결의안 1718호의 실행에 다소 소극적이던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이 결의안 1874호 이행에는 적극 참여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나타내는 듯 했다. 최근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국장 시 북한 특사 조문사절단의 서울 파견 등을 통해 북한이 보여 준 일련의 유화적 조치들도 이러한 국제사회 제재 압력을 극복하기 위한 전술적 선택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9월 15일 연합통신과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 핵 문제에 있어 북한의 변화된 모습을 찾기 힘들다. 오히려 강경 자세로 선회하는 인상을 준다. 지난 9월 3일 유엔주재 신선호 북한대사는 유엔 안

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전면 배격하며 그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폐연료 봉의 재처리가 마감 단계에서 마무리되고 있으며 추출된 플루토늄이 무기화”되고 있는 동시에 “우라늄 농축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결속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그리고 “제재를 앞세우고 대화를 하겠다면 우리 역시 핵억제력 강화를 앞세우고 대화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유엔 안보리가 제재 국면을 지속하면 “또 다른 자위적인 강경 대응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평화적 발전권을 난폭하게 유린하는 데 이용된 6자회담 구도를 반대한 것이지 조선반도 비핵화와 세계의 비핵화 그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대화와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국제사회의 움직임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 모두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미 국무부 대변인은 6자 회담을 전제로 한 북미 양자 대화를 2주 이내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일본도 하토야마 내각의 출범과 더불어 북한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총선 전인 지난 6월 30일 하토야마 총리 자신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제재 실행엔 충돌 우려”가 있다고 밝히면서 대북 제재는 “대화 촉구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거 자민당 식의 대북 정책은 펴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아예 다이빙귀 국무위원을 후진타오 주석의 특사로 평양에 보내 김정일 위원장의 6자 회담 참여의사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상황 반전이 눈앞에 와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5자 공조를 통한 대

북 제재' 타령을 하고 있다. 미북 양자 대화의 활성화보다는 그 지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유엔 방문 기간 중 대북 제재 공조와 강화가 미·중·일 등의 양자정상회담에서 주요 화두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고,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 더 이상을 보상을 해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시각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 정세의 판은 물론 우리의 위상 그 자체도 파악하지 못하는 외교 행보이다. 왜 패권국가 미국의 네오콘도 실패했던 정책을 우리 정부가 그대로 재연하려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바람직한 대응 방향

이미 북한은 핵 시설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핵무기 보유까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타결이 더 더욱 어려워 졌다. 사실 북한은 6자 회담의 2.13 합의에 의거한 핵 시설과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한 해체를 수용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바 있지만, 핵무기의 검증 가능한 폐기는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국의 핵우산과 연동, 핵군축 협상을 통해 풀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확대적 억지 (extended deterrence)' 개념의 명시화 이후 북한은 즐기차게 핵 군축 협상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협상을 통한 타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화된 현실인식을 기초로 북핵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비핵화라는 요구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협상의 우선 순위를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를 먼저 폐기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기 때문에 폐기될 때까지 이들에 대한 투명성과 통제를 확보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2.13 합의에 의거,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 시설과 프로그램(원자로, 연료생산 공장, 방사화학 재처리 시설, 그리고 최근 완성 단계에 있다는 농축 우라늄 시설)에 대한 검증 가능한 비가역적인 폐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핵무기 폐기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그리고 핵 시설 및 프로그램 폐기는 단기적 차원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6자회담과 9.19 공동선언의 중요성에 대한 합의가 재천명되어야 한다. 북한의 '6자회담 무용론'이나 한국의 '5자 공조 제재론' 모두 문제가 있다. 9.19 공동성명은 남북한과 주변 4강 모두가 참여하여 만들어 놓은 동북아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외교문서이다. 북한의 핵 폐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 평화 공존, 그리고 국교 정상화, 북한에 대한 에너지 및 경제 지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등 북핵 문제는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청사진이 제시되어 있다. 어렵게 만든 구도를 우리가 깨뜨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해 핵 억지력 강화로 맞선다는 북한의 논리는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6자회담으로 빨리 복귀해 상호 협의를 통한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북 설득이 필요한 바, 북한의 좋은 행동에 대한 포괄적 보상의 구도를 보여 주어야 한다. 리비아 모델에서처럼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요구하기 전에 정상 수준에서 공식, 비공식 접촉을 통해 북한의 지도자에 구체적이고도 포괄적 유인 효과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를 설득하여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그리고 안전을 보장해 주고 그 반대급부로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를 달성했던 것처럼 미국이 검증 가능한 핵 폐기 초기 단계에서 북한에 하나의 인센티브로 외교 정상화 카드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북·미·중 4개국 정상 회동과 종전 선언, 휴전 협정의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그리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등이 순차, 또는 병렬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엄격히 말해 보유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유일하다. 리비아, 한국, 브라질 등은 핵무기 개발 단계에서 외부의 압력에 의해 포기했던 것이다. 남아공이 핵무기를 포기한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보다는 내부의 정치 변화와 지도자의 결단 때문이었다. 백인 통치가 종식되고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핵무기 포기를 결정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 핵무기 보유의 북한에 대해 외압을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을 안심시켜 핵무기에 대한 국내 정치적 가치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을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조망해야 한다. 북의 입장, 북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 대북 정책을 만들고 조율해야 한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의 토대 위에 대북 핵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 급변사태론, 그리고 3남 김정운 후계자설 등 미확인 정보를 증폭시키고 '6자회담의 최종 목표는 통일'이라는 식의 주장을 펴는 전문가들이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한 올바른 대북 핵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고립, 봉쇄, 그리고 체제전환을 목표로 하는 대북 정책은 군사적 충돌과 같은 파국을 가져오기 쉽다. 새로운 발상의 전환과 현명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統**